

창의성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숙영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반짝하는 색다른 생각을 많이 떠올리는 것이 창의적일까? 아니면 툭툭 튀는 사람이 창의적일까? 그러나 그들이 지속적인 의미를 지닌 어떤 일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창의적이라기보다는 똑똑한 사람에 가까울 것이다.

쥐가 상자 속에 갇혀있는 걸 상상해보자. 무엇이 쥐를 가두는 걸까? 상자가 가두는 것일까? 상자는 여섯 개의 판자를 못으로 고정해야 만들어진단다. 상자가 무엇인가를 담지 못하면 쥐를 가둘 수 없다. 각각의 판자만을 보면, 판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판자 하나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면, 당연히 여섯 개의 판자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상자 속의 쥐는 당연히 도망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못 도망가는 것일까? 상자가 모든 방향에서 움직임을 막기 때문이다. 각각의 판자들은 특정방향으로 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는다. 왼쪽 면은 쥐가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오른쪽 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 윗면의 판자는 쥐가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상자의 비밀은 판자들을 어떻게 배열해 모든 방향에서 쥐의 움직임을 막느냐에 있다. 즉, 무엇을 담는 것에 영향을 주려면 각각의 판자를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창의성’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에서 한 부분을 떼어놓고 창의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창의적이라는 말은 다양한 부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대가로 불리는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교수는 창의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체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말한다. 그 세 가지 요소란, 상징영역에 새로

움을 가져오는 ‘사람’(개인), 그러한 새로움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장(평가자)’, 상징적인 규칙들을 포함하는 ‘문화’(영역)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아이디어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체인 ‘개인’, 그 개인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평가자’(여기서의 평가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 그리고 평가자에 의해 선택된 ‘창의적 산물’이다. 즉, 어떤 사람이 창의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의 ‘창의적’인 성향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창조해낸 새로움이 영역에 포함되는 일이다. 다시 정리해 보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기록하고 실행하는 청중이 없는 한 사라져버리고 만다(영역). 또한, 평가할 능력이 있는 외부인이 없다면,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현장). 예를 들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그 이전의 지식이 없었다면, 그들의 사고를 자극한 지적·사회적 조직망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발견을 인정해주고 공표한 제도가 없었다면,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상대성 원리가 아인슈타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불을 일으키는 것이 불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불꽃은 공기와 부싯돌이 없으면 타오르지 않는 법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견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이처럼 창의성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그것이 창의적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즉, ‘전문분야의 평가’를 받은 성과물에서 창의성을 찾아야 한다.”

도시 경제학자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그의 책 〈창조적 계급의 등장〉에서 3개의 T를 갖고 있어

야 혁신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세 가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Talent),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Tolerance), 그리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Technology)을 가리킨다. 그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혁신과 창조를 낳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세 가지 요소와 일치하지 않은가. 첫째 T는 능력을 갖춘 개인이고, 두 번째 T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현장이며, 세 번째 T는 문화의 소산과 너무도 닮아 있지 않은가.

세상은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창의성이 제자리인 가장 큰 이유가 혹시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전통 농업사회에서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의 의식 전반에 흐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전통적인 집단의 가치가 개인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에 더 익숙하기에 별생각 없이 사회가 심어놓은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기성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는 창의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왜냐하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독립적 사고 즉, 무엇보다도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기본전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창의적 산물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되고 선택되는 환경에서만 탄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